

도심 주유소에서 '당일배송 서비스' 선보인다

- 23일 도심 주유소 내 최첨단 자동차 시설 갖춘 스마트 MFC 준공
... 로봇이 입고·보관·출고하는 최첨단 디지털 물류서비스 기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오는 11월 23일(목) 도심(서초구 내곡동)의 주유소 내 최첨단 자동화 시설을 갖춘 스마트 MFC를 준공하고 인근 지역 주민이 신속한 배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물류 서비스를 실증한다.

○ 스마트 MFC*는 제품의 입고·보관·출고까지 모든 과정이 로봇 자동화로 처리되는 최첨단 디지털 물류 시설이다.

* Micro Fulfillment Center : 주문 분석 및 예측을 바탕으로 제품을 사전에 입고해 보관에서부터 배송까지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 물류 공간

○ 이 시설을 이용하는 판매자의 상품은 허브터미널과 서브터미널로 보내는 집화·분류 과정이 생략되어, 인근 지역 주민에게 당일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.

* (일반 택배운송 프로세스) 화물을 집하하고 지역별 분류를 위해 Hub터미널로 이동하여 해당 지역 내 Sub터미널에서 고객에게 최종 배송

《 일반 택배 운송 서비스 과정 》



□ 이 사업은 디지털 물류 실증 지원사업*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 지원(국비 6.5억, 서울시 6.5억)하여 '22년 9월 착수 후 조성하였으며, 시설 내 설치된 6대의 로봇이 입고·보관·출고까지 하루 3,600개의 물품을 자동 처리하는 규모로 운영된다.

* 지역물류 문제 해소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(라스트마일, 공동 물류, 융·복합서비스, 생활 안전 등)에서 디지털 기술 기반의 물류 서비스 실증 지원

- 이번에 운영을 개시하는 내곡동의 스마트 MFC는 전국 최초로 주유소 내에 설치하는 시설로 사람과 지게차 이동을 위해 통로 간 공간확보가 필수적인 기존 물류시설과 달리 로봇과 수직적재를 활용해 고밀도로 보관할 수 있어서 일반창고 대비 공간 효율성이 4배 가량 높다.
- 또한, 스마트 MFC를 거점으로 교외지역이 아닌 도심 내 드론배송 실증도 구현하여 향후 드론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과장은 “이번 사업을 통해 주유소 내 스마트 MFC를 구축하여 신속한 배송을 위한 자동화 물품보관 거점을 조성함으로써, 생활물류 급증으로 인한 도심 내 물류시설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물류정책관	책임자	과 장	김근오 (044-201-3993)
	물류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김애란 (044-201-3996)
<공동>	서울특별시	책임자	과 장	이영훈 (02-2133-4070)
	물류정책과	담당자	팀 장	엄기찬 (02-2133-4072)



참고

서울시 주유소 복합화 서비스 실증 개요

□ 실증 개요

- (사업목표) 도심 내 주민 생활 근거리와 밀접한 주유소에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MFC 구축 등 생활물류거점 마련 실증
- (실증구역) 서초구 내곡동 GS칼텍스 에너지플러스허브 내곡
- (사업기간) '22.9월 ~ '23.12월
- (사업내용) 주유소 첨단 물류복합시설 조성
 - 무인 자동화 물류시설 구축을 통한 물품배송서비스(라스트마일) 제공
 - 인근 공원·하천 대상 드론배송 실증



전경



자동화시스템

□ 추진경과

- '22년 디지털물류 실증지원사업 선정('22.4월)
- 서울시-(주)GS칼텍스 간 선정기관 협약 체결('22.월), 건축허가('22.11월)
- 주유소 재건축 준공('23.11월)
- 스마트MFC(오토스토어) 설치·자동화 시스템 가동 테스트('23.10~12월)

□ 향후계획

- 운영 및 드론·로봇 배송실증('23.11월~)
- ⇒ 운영사와 정기적 협의를 통해 차량동선·첨단기기 활용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테스트를 통해 안정적 운영 추진